

연중 제 30 주일(전교주일)  
제 1 독서 : 예레 31, 7-9  
제 2 독서 : 히브 5, 1-6  
복 음 : 마르 10, 46-52

# 순정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  
“선생님,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마르 10, 51)

## 강론

## 소리

### 전교 주일

이태주 신부/관리국장

오늘은 연중 제30주일이며, 전교 주일입니다. 전교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기쁜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올로는 이 “기쁜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1고린 9, 16 참조). 이 말씀은 전교 주일을 맞이 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의미에 있어서 신자 개개인이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교회는 죽은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를 상상할 수 없듯이, 전교하지 않는 신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전교의 달을 맞이해서 교회 대중 매체에 소개되고 있는 ‘선교 보람에 산다’는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성하게 합니다. ‘가르치기 보다 함께하며 복음 전파를 하는 달동네 선교사의 이야기’, ‘입교 권면 없이도, 자신의 삶으로 하느님 교회의 모습을 전하고 있는 빈민 선교사의 이야기’ 등…….

모두가 한결같이 신앙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 주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덮어 놓고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외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교자는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리고 소경의 신앙 고백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자기 육신을 마지막으로 지켜 주는 겉옷까지도 내동댕이치고, 예수를 향해 돌진했던 눈먼 소경의 신앙 고백!

일 년에 한 번 있는 연례행사로 그치는 전교 주일이 아니라, 모든 날이 전교 주일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전교의 표현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노벨상

원폭참화의 현장 히로시마에서 열린 제12회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거둔 종합 2위는 다른 어느 대회에서보다 값지다고 할 수 있겠다.

꽃다발에 파문혀 귀국한 선수들에 대한 환영도 대단했다. 우리를 속박, 찬란한 우리 문화를 말살하려 했던 일본, 경제대국을 자처 잔뜩 자만스런 일본을 그것도 저네들 땅에서 쫓아내려 꺾었으니 장한 노릇이다.

그러나 대회기간중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일본의 ‘오에 겐자부로’가 선정됐다는 발표에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에 상처를 입고 말았다.

노벨상은 금메달 백개와 맞먹는다는 말이 나올만큼 세계가 인정하는 권위의 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를 전수했고 한문을 우르려뜨리고 쪼개서 문자로 사용하는 일본이 두 번이나 수상자를 낸 것이다. 훌륭한 문자와 역사를 지닌 우리가 노벨상을 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노벨상은 미국과 유대인의 잔치라고 한다. 올해의 의학, 생리학, 경제, 물리, 화학수상자 8명 중 7명이 북미 출신이고 이 중 6명이 미국인이거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평화상 수상자 2명 중 1명이 유대인이다. 특히 역대 수상자 가운데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학상 65%, 의학상 23%, 물리학상 22%, 화학상 11%, 문학상 7%이다.

미국은 연구환경이 좋아 그렇다치고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휩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나라 없이 방황하며 박해를 받으면서도 어려서부터 영재를 발탁해 교육시키고 세계 속으로 눈을 돌리도록 지도한 결과다.

스포츠로 국위를 선양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정신적 문화적 성취는 더욱 값지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 순정이 산책



특집 - 전교의 달에 만난 사람

## 조정례(마리아) 씨

효자우전 성당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 19-20)

이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세상 끝날까지 선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가르치는 말씀이고, 우리는 주님의 이 마지막 유언을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 아주 소극적이고, 용기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열정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전교의 달을 맞이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온 정열을 쏟으며 신명나게 살아가는 조정례(마리아·62세) 자매님을 만나본다.

레지오 활동 30년(단장 27년, 꾸리아 단장 5년)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배웠고, 전교하기 시작했다는 그녀는 전교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성서읽기라고 한다. 그녀는 전교하기가 힘들 때 사도행전을 읽으면, 자신도 모르게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 힘이 생기고, 바로 사도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용기가 난다고 한다.

70년대 진북동에 살면서 구역반장과 구역회장을 역임하며 전교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녀는 “레지오 단원이라면 누구나 바로 사도를 닮아야 해요”라며 힘주어 말한다.

“저는 레지오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이웃의 가난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도울 땐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누구나 도와 주었죠. 그 중에 하 마테오 씨는 정말 가난했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처음 봤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놀랍기만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그는 폐병으로 죽었어요. 그때 이웃 사람들은 전염이 두려워 도망갔고, 저도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데 하느님께서 ‘너만 살려고 도망 가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다시 돌아 와서 그의 장례를 손수 치루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 보던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는 폐병에 전염되지도 않고, 있는 사람이 굶은 일을 자청하는 것을 보니, 정말 성당에 다녀야겠다며, 너도나도 입교하여 한 집 건너 모두 신자가 되었지요”라고 회상하며 그 후로는 어떤 굶은 일이라도 뛰어들어 투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느낀 것은, 하느님께서서는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도 이웃의 아픔을 이해하도록 하였고, 어떤 때는 수술을 앞두고 병실에서 만난 한 여인을 하느님의 자녀로 인도했다. 그리고 아무리 당시 몸이 아프고 불편하더라도 임종을 앞둔 사람이 있다면 달려가 대세를 졌다.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녀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하느님을 거부하던 사담이 하느님의 품안에서 숨을 거둘 때 늘 감사하고, 그때마다 하느님의 현존을 강하게 체험한다는 그녀는 성모님과 함께 성령의 이끄심으로 전교한다고 고백한다.

그녀는 또한 전교하기가 가장 힘든 대상은 냉담교우임을 밝히면서, 이들은 하느님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기에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성서를 읽도록 권유해야 한다고 한다. 성서에 대한 이해 부족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원인이 되고, 선교열도 점차 식어 간다는 것이다. 대중 매체를 통해서도 성서를 바탕으로 한 전교를 해야 한다고 오늘날의 흐름에 맞추어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녀는 지금 중앙 성당에서 30년간 활동하던 모든 것을 내어 놓고, 외손자를 키우기 위해 효자우전으로 이사했다. “지금 은 외손주(오 신부님이라 부른다)에게 전교하고 있어요”하는 그녀의 모습은 겸손함과 한 사제를 탄생시키기 위해 사랑을 다 쏟고 있는 듯하다. 그의 작은 체구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은 앞으로도 이웃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그를 만나는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겠다.”(루가 12, 8)

**한국 속셈 학원**  
유치부·국교부·중등부  
(유치부, 국교부 교사 초빙합니다)  
유인봉(가브리엘)  
박란유(크리스티나)  
구해성교회 윤호관 앞  
☎ 254-2150

**유럽 I·D**  
커튼, 카페트, 벽지, 바닥재, 블라인드  
버티컬, 침구, 실내 인테리어  
허희열(멜시오)  
정영숙(마리안나)  
중화산동 원예농협, 전북은행 건너편  
☎ 222-5564  
호출기 012-672-4286

**이명복 박사의  
시상·팔상 체질 감별**  
(이제 전주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재갑(다두)  
정원미(클리우디아)  
중화산동2가 파출소 맞은편  
☎ (0652)224-6207~9  
황명건간희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진신C-T촬영·일반X-선촬영  
골다공증 측정·전신초음파촬영  
유방촬영·임상병리검사  
박인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터리  
☎ 78-1312~3

교리상식 11

전교의 달

1926년 교황 비오 11세는 신자들의 전교열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의 끝에서 둘째 주일을 '전교를 위한 기도와 활동(선전)의 날'로 정하였다. 한국 교회는 1970년 10월을 '전교의 달'로 정하여 전교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전교와 선교와 복음화란 무엇인가. 전교란 복음을 널리 전파한다는 뜻으로 선교와 같은 말이다. 그러나 나이 든 신자들에게는 전교가 더 익숙해진 단어이다. 전교 회장은 있어도 선교 회장은 없다. 그러나 선교사나 선교학은 최근의 용어로 젊은층이 잘 이해한다.

선교는 파견이란 뜻이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파견되었고 그분은 다시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셨다(루가 10,1-2 참조). 교회는 이 임무를 맡아 복음 전파를 위해 신자들을 파견하는데 이를 선교라고 한다. 선교의 핵심은 '예수께서 주님이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다.

복음화란 무엇인가. 복음화란 복음 선포, 선교, 사목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전체를 포함하는 말이다. 모두가 새 사람(에페 4,24)으로 구원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일 미사는 복음화의 현장이다.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파견의 말은 세상 복음화와 시작을 뜻한다.

"우리는 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분의 일을 해야 한다."(요한 9,4)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전교 회장이고 선교사이다. 이 영광스러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되면서 우리 모두는 외치는 것이다. "천주께 감사합니다."

교구 소식

- ※ 가톨릭 문우회 문학의 밤: 10월31일(월) 오후7시 가톨릭센터 3층 강당  
초청강사-이해인 수녀
- ※ 가톨릭 사진가회 불우이웃돕기 사진전: 10월29일~11월7일 가톨릭센터 1층 회의실
- 1. 축! 견진: 10월29일(토) 오후3시 무주 성당, 10월30일(일) 오전10시30분 장계 성당
- 2. 천호 피정 안내: 10월27일(목) 주제-부부의 사랑과 가정의 행복, 강사-김용태 신부  
10월29일~30일 주제-진복자가 되는 길, 강사-유수일 신부, 문의 73-6600
- 3. 가톨릭 사진가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85-0041(홍보국)
- 4. 혼인 강좌: 10월30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회비-1인당 10,000원
- 5. 레지오 마리아에 단원교육: 10월24일(월) 오후7시 덕진 성당, 강사-김봉희 신부, 고흥석
- 6. 사랑의다리후원회 1일 피정: 11월7일(월) 오전9시, 치명자산 성당  
지도-범석규 신부, 회비-5,000원(중식 포함), 문의 (0652) 84-5290
- 7. 성가정 성공사례, 신앙체험수기, 선교체험수기 공모: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마감-11월21일, 주최-전주교구 평협, 문의 (0652) 85-2935
- 8. 은혜의 밤 철야 기도회: 10월28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 9. 일본어 개강: 10월24일(월) 오전11시 가톨릭센터 3층, 회비-5,000, 여성연합회 주최
- ※ 축! 영명: 28일(성서문과 유다) 박중신, 한복섭, 서정현, 장상호, 이완재 신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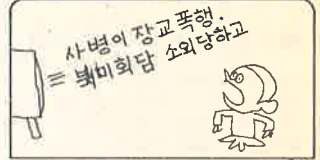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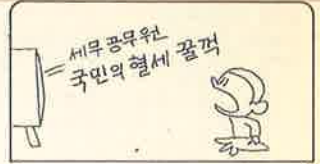
- **성소모임** 부산 성베네딤토 수녀회: 10월23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0652) 78-0094  
살레시오 수도회: 10월23일 오후1시 인보성체수도회 (062) 512-0332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서로 협력을

하천에서의 차량세척 행위는 이기적인 향락풍토에서 이루어집니다. 심각해진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서로서로 협력합시다.

요십이 (1104) 김병오



요십이(김병오) 유화 작품전

- 일시: 10월29일~11월5일
- 장소: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2층 전시실(남문 옆)

천호성지 관리자 모집

1. 지원자격: 영세한지 5년이상된 남자로서 운전면허 소지자 2. 학력, 연령: 제한없음 3. 제출서류: ①이력서 ②본당주임신부추천서 ③세례증명서 ④운전면허증사본 각 1통 4. 접수 마감: 1994. 10. 31(월) 5. 접수처: 전주교구청사부처(85-0041) 6. 선발자는 면접을 거쳐 개별통보함

저농약, 천연조미료, 내장산 지하수 전량 태양조만 쓰는!

순창성당 김치

(판매중: 각 본당 매장)

순창성당 김장김치

(주문접수중: 11월20일마감, 12월배달)

- 문의: 순창성당영농조합 ☎(0674)53-8040, 52-1004

천호장의사

장례용품 생산 및 장례의전 서비스  
24시간 상담, 대기  
한규학(안토니오)  
☎(0652) 253-0744  
71-0404

40년 전통 성심당 한악방

이상범(필로리아노)  
중앙시장 육교 밑  
☎ 252-4544, 85-0173

기아 자동차

새차 구입, A/S상담, 중고차 상담.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억(요섭)  
☎(0652)87-6301~6  
호출기 015-685-0312

오순절 평화의 수녀회 성소모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정신으로 수도생활을 하고자 하는 고졸 이상의 미혼여성  
· 일시: 10월30일 오후 2시  
· 장소: 삼광진 본원 (0527)52-4241  
· 준비물: 신구약 합본 성서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 연중 제 30주일
- ◎ 오늘은 전교주일! 예비자 인도에 적극 참여합시다!
- 1. 노송 청년 프란치스코회 임원 명단
  - 청소년담당-이수원(프란치스코)
  - 청년부장-김현아(세레나)
  - 교육담당-은경순(리디아)
  - 서기-최상옥(로사)
  - 회계-강희현(로마노)
- 2. 여수녀님 휴가: 24일~29일
- 3. 반미사 안내: · 인후4반-25일 후 3시  
기린봉APT 1반-27일 후 3시  
기린봉APT 3반-28일 전 11시
- 4. 모임: ①꾸리아(오늘)  
천사의 모후-장영미사 후  
자비의 모후-후 2시  
②제대회(25일 어머니미사 후)  
③빈첸시오회(27일 전 10시30)
- 5. 축! 혼인: 30일 전 11시30분  
신랑-양봉옥(노렌쵸) 신부-김혜영(헤레나)
- 6. 다음주일(30일)은 나운동성당 견립을 위한 2차헌금 있음.
- 7. 금주 청소: 인후4,6반. 차주 청소: 인후7,8반  
□ 지난주 봉헌금: 932,260원 □ 교무금: 834,750  
□ 2차헌금: 360,93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상호  
사목회장 함길평

- 1. 오늘은 전교주일! 2차헌금 있음
- 2.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시
- 3. 축! 영명축일: 28일(금) 장상호 시몬 보좌신부님  
\* 오늘 공식미사 후 축하식 있습니다.
- 4. 혼인성사 및 혼인성사 갱신식: 29일(토) 저녁미사에  
\* 혼인성사를 위한 피정이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 5. 유아 세례: 29일(토) 오후 6시30분
- 6. 가정 방문(오전 방문은 9시 반, 오후 방문은 2시에 시작)  
25일 오전-다가동 5반, 오후-고사동 1반  
26일 오후-고사동 2반  
27일 오전-중앙동 1,2반, 오후-완산동
- 7. 견진성사: 밤오실 분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8. 성당 청소(29일): 평화의 모후, 순결하신 어머니
- 9. 금주 전례: ①오교성 ②문금철 부부 ③변윤석 가족
- 10. 차주 전례: ①허정식 ②유두석 부부 ③장금순 가족  
□ 지난주 봉헌금: 618,250원 □ 교무금: 1,108,400원

**\* 상 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 축! 영명: 성시몬-28일(금)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바랍니다.
- 1. 오늘은 전교주일! 2차헌금
- 2. 구역형제회: 26일(수)-하신, 상신, 원신
- 3. 모임: ①성모회-다음주일 ②울뜨레아-29일(토) 저녁
- 4. 본당 발전을 위한 헌금: 다음주일
- 5. 지속적인 섬체조배: 매주 목 저녁미사 후~매주 금 저녁미사 전까지
- 6. 주일학교 소품: 30일(일) 치명자산, 3시미사-치명자산 성당
- 7. 금주 청소: 평화의 모후Pr
- 8. 차주 청소: 바다의 별Pr
- 9. 금주 전례: 해설-이춘봉, 독서①남현준 ②이순자  
봉헌-강인기씨 부부  
차주 전례: 해설-김희남, 독서①정광섭 ②주영례  
봉헌-김한철씨 부부
- \* 칠십사관?  
세례성사: 물로 씻는 예절을 통해 받는 성사로서 세례 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성사  
견진성사: 세례받은 신자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과 칠은을 주는 성사로서 하느님의 일꾼이 되게 한다.  
□ 지난주 봉헌금: 333,890원 □ 교무금: 380,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범부

- ◎ 연중 제 30주일! 전교주일 2차헌금 있음
- 1. 반장회: 10월30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2. 교리교사 월례교육: 10월23일(오늘) 가톨릭센터
- 3. 자모회: 11월(수) 오전 10시30분
- 4.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먼저 가신 조상님과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많은 기도바랍니다.
- 5. 축! 결혼: 10월23일(오늘) 오전 11시30분, 서학동 성당  
신랑-김종욱, 신부-유영옥(안나)  
축하드립니다.  
금주 전례: 해설-유용산(바오로) 독서-이재호(리차드) 부부  
차주 전례: 해설-김종호(프란치스코)  
독서-김배근(스페라노) 김명화  
□ 지난주 봉헌금: 860,100원 □ 교무금: 778,000원

**\* 전 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관재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전교의 달)
- ◎ 축! 영명: 이완재(다테오) 보좌 신부님(10.28)
- 1. 금주: ①전교주일(2차헌금)  
②사목회 야유회  
③성마리아 꼬미시옹(후 2시)
- 2. 구역반장 야유회: 25일(화)
- 3. 주임신부님 구역 사목방문: 많은 관심바랍니다.
- 4. 성지회: 28일(수) 오후 8시
- 5. 차주: 울뜨레아 환영회(공식미사 후)
- 6. 각 가정에 "교우의 집"문패 부착-사무실에서 배부
- 7. 9월 영세자 사진 찾아가십시오.  
□ 지난주 봉헌금: 1,971,74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강상근

- ◎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는 전교주일입니다. 특히 오늘은 어린이 전교주일로 교회의 선교활동을 위해 정성껏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목협의회 회장 선출: 30일 공식미사 후, 사목회 임원, 계단 계장 및 구역 반회장님들은 전원 참석바랍니다.
- 2. 위령의 날 합동미사: 11월2일 전 10시30분 교회묘지 세상을 떠난 영혼을 위해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사무실 접수
- 3. 범자 봉성체: 28일 전 9시 사무실에 미리 신청바랍니다.
- 4. 혼인감좌: 30일 전 9시30분 센터, 혼인 신청자는 교육 수료증을 가지고 혼인 20일 전 본당 신부님께 면접바랍니다.
- 5. 자선의 날: 26일 불우한 이웃을 위해 정성을 담읍시다.
- 6. 가정 방문: 27일 3-1반 전 9시, 3-2,3반 후 2시30분, 28일 3-4반 후 2시30분.
- 7. 남전주 지구 초동부 교리교사 월례회: 25일 저녁 6시, 본당.
- 8. 전입을 환영합니다: 강희연(바오로) 11-6 ☎82-6930 전 원(프란치스카) 12-3반 ☎223-9386 정병희(바오로) 6-3반 ☎84-9395 이진옥(헬레나) 10-4반 ☎82-2893
- 9. 회의: 울뜨레아-오늘 공식미사 후, 풍송회-오늘 공식미사 후, 자모회-26일 어머니미사 후.
- 10. 교무금 납부주일: 사무실에 확인하시고 납부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30,250원 □ 교무금: 1,277,000원